

‘과일·채소 부패 발생 억제’ 농진청 개발 신선도 유지기술 농식품 수출 도우미 역할 ‘톡톡’

딸기에 이산화탄소 30% 농도로 3시간 처리하면 물러짐·부패 20% 줄어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 복합 처리기 만들어 충남 논산 등에 보급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선도 유지 기술이 농식품 수출과 국내 유통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의 판매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물론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일·채소의 물러짐이나 부패 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신선도 유지기술을 수출과 국내 유통에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종 중 하나인 딸기는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이 쉬워 선박으로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농진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기에 ‘이산화탄소(CO₂)와 이산화염소(CO₂)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딸기에 이산화탄소를 30% 농도로 3시간 처리하고, 동시에 이산화염소 10ppm을 30분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물러짐과 부패를 15~20% 줄일 수 있다. 또 저온(2℃)에서 신선도를 기존 7~10일에서 10~14일로 3~4일간 연장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적용한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 복합 처리기’를 만들어 딸기 수출 단지의 충남 논산과 경남 진주 등에 보급해 동남아 딸기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선박 수출 시 물러짐 등으로 잦은 클레임(이의제기)이 발생했던 포도에도



“흙의 가치 다시 한 번 돌아볼 계기”

농촌진흥청은 11일 제6회 ‘흙의 날’을 맞아 한국토양비료학회, 농민신문사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Net-zero 시대 토양·비료의 가치 있는 활용’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변화 시대, 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건강한 농촌, 건강한 국가의 기반인 흙을 제도적, 기술적으로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는 ‘엠에이(MA, Modified Atmosphere) 포장기술’이 적용돼 수출길을 넓히는 데 한몫했다. 이 기술은 포장상자에 유공비닐·흡습지·유탄패드를 이용해 포도를 보관하고, 운송온도를 0℃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장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5개월로 3개월이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기술 덕분에 포도의 장기 저장유통이 가능해져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또한 ‘홍수출하가 아닌 분산출하’를 할 수 있어 중국 명절 등에 맞춰 수출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포도 수출액은 전년보다 32.4% 증가한 3,12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르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쉽게 시들어 버리는 상추 등 잎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개발한 ‘숨 쉬는 포장 용기’는 신선도 유지기간을 2배 이상 늘리며 잎채소 유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숨 쉬는 포장 용기’는 잎채소의 호흡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에틸렌을 효과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아자수 활성탄’과 부패와 냄새를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있는 ‘키토산’을 사용해 만든 용기다. 이 용기를 이용하면 상추는 저장기간을 상온에서는 기존 2일에서 4일로, 4℃에서는 기존 10일에서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와 긴 잠마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75억6,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7% 늘

었다. 이 중 신선 수출액은 14억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은 “농산물은 신선함이 품질과 가격을 좌우하는 만큼 품종별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과 물러짐이나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제어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유통 및 수출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논산 농협 이화중 대리는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 복합 처리기’ 덕분에 수출 클레임이 많이 줄고 좀 더 신선한 딸기를 수출할 수 있어 한국산 딸기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다”며 “앞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청정축산 환경대상 ‘우수상’

무진장축협 ‘샘골농장’, 시상금 500만원 포상받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020년 제3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무진장축협(송계근 조합장) 소속 샘골농장(대표 정화, 육계)이 우수상(농협중앙회장상)에 선정, 상장과 시상금 5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축산환경대상은 매년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농립축산식품부, 환경부, (사)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하는 대회로서 전국 각 지역에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우수농가 중 축산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등에 대해 현장 평가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정화 샘골농장 대표는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지난 1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기탁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농업인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운동은 축산종사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환경 개선 실천 우수농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다 같이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상호금융예수금 1000억 달성 ‘쾌거’

익산 금마농협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1일 익산 금마농협(조합장 백낙진)을 방문해 상호금융예수금 1,000억원 달성탑을 전달했다.

금마농협은 코로나19, 시중금리 하락 등 어려운 속에서도 친절한 고객응대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예수금 1천억 원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 추진 우수사무소에 선정돼 중앙회로부터 표창패를 수여받았으며, 상호금융대상평가 장려상 수상,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사무소 선정 등 감소농협으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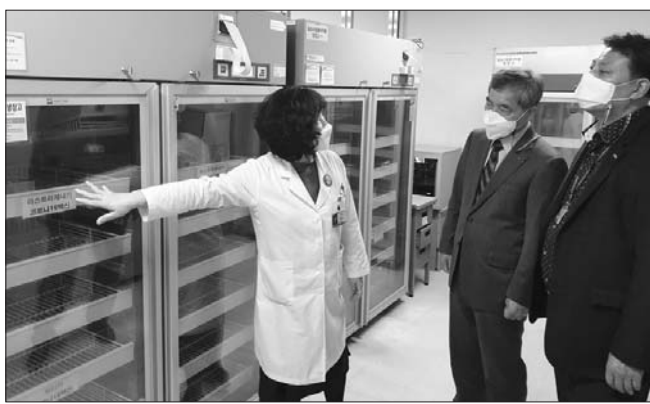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디지털 금융, 비이재이 증대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및 건전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백낙진 조합장은 “조합원 실익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보관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전기안전공 합중결 상임감사 전북대병원 백신 보관시설 찾아 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원 약속



백신보관시설을 확인 중인 합중결 상임감사(사진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합중결)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 접종·보관시설과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합중결 상임감사는 지난 10일,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백신 접종·보관 시설을 둘러보고 전기설비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컨설팅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합 감사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게 보관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접종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에 만전

을 기하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편,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지난 6일부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LH 전북본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착수

전주평화1단지 등 8개 단지, 세대통합·단일세대형으로 추진

LH전북지역본부(김승철 본부장)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착수 예정인 영구임대단지는 전주평화1단지 등 8개 단지로 예정돼 있으며, 연립된 2세대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소형평형(전용 26㎡)을 넓은 평형(전용 52㎡)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형과 26㎡평형을 전면 리모델링

한 단일세대형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모든세대는 고효율 단열재, 고성능 창호, 절수형 설비, 친환경 자재시공으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해 주택성능을 향상하고 입주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세대통합형 다세대세대, 단일세대형은 대학생, 보호종료아동, 주거약자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수 주거자산관리부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건강한 주거생활이 제공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농작업 시기가 서로 다른 농협이 공동경제사업 확대에 상생하며 조합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남원농협과 운봉농협, 지리산농협은 상호협동을 통해 발전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농 상생발전 벼 공동육묘 ‘협력’

남원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과 협약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0일 회의실에서 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과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벼 공동육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농협의 육묘장은 3,385㎡(1024평) 규모로, 7,3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신청한 물량을 일시에 공급하기엔 육묘 생산 시설이 협소해 지난해부터 위탁생산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육묘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남원농협이 공급할 10만장의 육묘 중 운봉농협에 2만 4,000장의 발아육묘 위탁하고, 지리산농협에는 2만장의 완성육묘를 위탁했다.

김경열 남원농협 농가소득지원 본부장은 “육묘는 이앙작기에 공급해야 하기에 공급일과 공급량 한계로, 공동육묘를 통해 이앙작기에 농업인이 원하는 공급량을 제공해 농업인 실익 증진의 동력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농작업 시기가 서로 다른 농협이 공동경제사업 확대에 상생하며 조합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남원농협과 운봉농협, 지리산농협은 상호협동을 통해 발전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비주택 거주 주거 취약계층 대상 안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요건을 갖춰있어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제때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주택 거주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해왔다. 그 중에서도 거주불명등록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고령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써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고용악화, 매출감소 등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전년보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안내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 신청자 수는 3.3만 명으로 약 9.1천 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6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 1월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제때 받아 노후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갑질 근절 선포식

서부지방산림청은 11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갑질 근절 선포식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직장 내외의 갑질행태의 근절과 부조리를 없애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진행은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및 주요 사례를 교육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직원 간의 상호존중·배려 실천을 담은 갑질 근절선언문 선포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갑질 근절선언문을 낭독하며, “누구나 근무하고 싶고 직원 간 배려와 웃음이 넘치는 직장, 갑질 없고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